

큰스님 수행한담

철석같이 믿으세요



1971년 해인사 용담선원에서 은사 고암스님을 모시고 기념촬영한 정원스님(사진 뒷줄).

가 적었어. 버리고 별러 김용사 주지를 마치고는 은사스님 밑에서 공부하려고 해인사 용담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은사스님은 다시 해인사 총무 소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스님말씀에 따라야지요. 지금도 참선정진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상좌들에게도 "선방가라 도 통하라" 가르칠 때 무척 겁나. 나는 상좌들 가르칠 때 무척 겁나. 아주 문 닫아놓고 공부하려고 가르치는 거지요.

다. 부처님께서 밤에 새벽을 보시고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일체의 중생이 여래의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구나"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직 이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는 모두 이 마음을 말했고, 우리의 수행도 이 마음을 닦는 것이며, 중생이 업을 짓는 것도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놓아 버리지 않고 여러식

“역대조사 마음을 말했고 수행도 마음닦는 것이며 업 짓는 것도 마음때문이지요”

에서 가르치는 요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발심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하며, 둘째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발심한 사람은 보시를 많이 해야 하고 또한 보시를 하는데 있어서도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가지 상(相)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는 즉 모든 불자들이 말하는 경성성불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심하고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하고, 또한 상에 집착함이 없이 중생을 제도해야 하고, 그리하여 상이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즉 상이 없으면 곧 성불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교는 궁극적인 목표가 부처님을 만나고 성불하는 것인데 포교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점에 대해 별개라고 생각하는 불자도 있습니다. 마치 포교는 특별히 이에 힘입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불하려는 사람은 포교할 여가가 없다는 이론을 지닌 것이지요. 자기의 갈 길이 더 바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에서 하는가 하는 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포교한다는 상이 없이 포교할 때 결국에는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불의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나 하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참선만이 성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교의 전통에서 볼 때 출가한 스님들은 참선을 주로 하고 있으니 재가자들도 참선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끝내고 벗어나는 일에는 들어가는 문이 아주 많습니다. 선종 강경 지계 염불 등 근거따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갖가지 법문이 모두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법에 통하면 만법에 통하지만, 한 법에 통하지 못하면 일체에 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낱알만 것입니다. 즉 불자가 되어 바른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면, 벗어나는 법을 구하여 힘써 나를 잊고 경계에 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자가 자기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한 생각 잘못하는 털갈만큼의 차이로도 하늘과 땅으로 벌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란 것이 상대적이고 유한함에 비롯된 모든 연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그토록 괴로운 삶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구요. 종교 철학 등 각 방면에서 행복추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 즉 무한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사해탈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자기마음 항복받아 미망 벗어 나세요 집착·탐욕 버리는 길은 무주상 보시

꿈에서 하지 않으면, 더구나 출가사문이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그 과보를 얻지 못합니다. 그저 중노릇 잘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신도들한테 자발적으로 스스로 발심해서 시주하는 것만 받습니다. 또 맹목적인 시주는 받지 않아요. 시주 받아도 적어도 내나를대로 3%정도는 시주자에게 선물로 되돌려 주겠다는 원칙으로 삼습니다. 신도들 복짓게 하는 것도 좋지만, 팬스레 부담주고 폐기하는 일은 결코 정법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회도 살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느끼면서 시주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거든요.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이를 확고부동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고 사물마다 없지 않은 것으로, 모든 경전에서 이 마음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생각을 하며, 먹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식으로 살면 천도법계에서 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성품이 본래 부처이니 허망하게 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탐내고 성내는 습기를 제거해 버리면, 본래 성품이 청정하여 인연따라 자재한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참된 부처님의 제자는 뜻을 세우고 철석같은 마음으로 위의를 배우고 규범을 잘 따라야 합니다. 남이 자기를 모자란다고 지적할 것을 격정하지 말고, 측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다짐에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금생에 비로소 불교에 귀의한 것이니 노력하여 도를 구하고, 명리의 장애 들어에서도 안되고 견고심이 오래오래 변치않아야 합니다. 우리 조계종에서 소의경전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발심한 사람이 가져야할 마음가짐 가운데 보시를 강조했는데 특히 집착함이 없는 보시 즉 무주상 보시를 제일로 꼽습니다. 또 포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만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는 부처님께서 보신 중생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본받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길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며, 행동으로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마음입니다.



이은정

(前 보문교 교장)

<상>

법당에 들어 가보면 부처님 뒤편에 후불탱화가 모셔져 있다. 이 탱화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후불로 모신 경우라면 빠지지 않고 그려지는 두 제자가 있다. 마하가섭과 아난존자. 내가 처음 만난 스님은 꼭 마하가섭 존자와 같은 하얀 눈썹을 지니셨다. 스님은 사중 식구들에게는 물론 절 밖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분이셨다. 그러나 내가 스님을 처음 친견했을 때는 왜 그 스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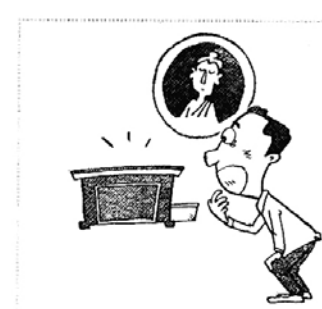
하루는 스님이 나에게 목욕물을 데우라고 하셨다. 산중이었지만 큰 가마솥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었다. 목욕물이 데워졌다고 말씀드리자 황송하게도 목욕을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하루는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다. 내 뒀에는 지금껏 마당 쓸던 습관으로 최선을 다해서 쓸었는데 스님은 빗자루를 달라고 하셨다. 구석구석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잔 모래알까지 쓸어 내시며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 뒤부터는 마당쓰는 습관이 달라졌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주리반 특이 마당을 쓸라고 하면 빗자루 드는 것 잊어버리고, 빗자루 들면 마당 쓰는 것 잊어버리는 정도의 바보였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 침소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그 얼마 뒤에 책을 보고 알게 됐다.

한 해 가을 스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톨골도 마다하시고 거처도 모르는 더 깊은 산중으로 떠나시고 안 계시니 마다. 새벽 예불시간 법당에 가보니

젊은시절 노스님 시봉하며 공부 마음의 때 닦는법 배운 값진 경험

먼저 등을 밀어 드렸더니 나중엔 내 등을 직접 밀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더구나 법당 안에 등이 꺼져 있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법당 안으로 들어가 더듬거리며 탁자 앞에 있던 성냥으로 불을 켜 촛불을 밝

“목욕을 오래 안 했구나 때가 많아. 나이도 어리데 왜 때가 이리 많나... 몸이 약하구나 어디 아파나. 왜 이리 아위었나. 좋은 약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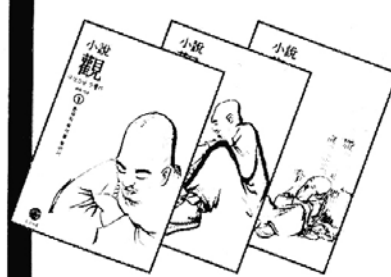
“나는 열하고 한살에 종이 되었다. 명이 짧다고 부모를 떠나 이 산중에 처음 왔지. 내 성질이 참 급하고 독해서 부처님 밑에서 안 살았으면 사람도 죽었을 거야. 다행히 부처님 밑에서 살았으니 살인을 면한 것일 거야. 참는 게 제일이야. 내 몸을 토막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돼. 나는 그저 기도만하고 살았지. 내가 간도에서 수월스님을 시봉하고 살았는데 그 분도 오직 기도뿐이셨지. 목욕부담이시라 염불이외에는 말이 없으셨어. 그러나 내 기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복간도의 추위를 이기지 못했는지 병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었어. 그 때 수월스님이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산중에 다시 와 토굴을 짓고 기도정진하며 살고 있는 거야...” 스님의 말씀은 깊은 산중에서 돌이 서만 한달에 세네 번씩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법회였다.

했다. 아니다 다음날 칠성단 앞에 모셔 놓았던 불상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 부처님은 그 절에서는 제일 오래된 나무로 조성된 고불이었다. 큰방에 모셨다가 도난의 염려가 있다고 법당에 식인장치를 다시 하고 모신 것이 오래 전이었나... 항상 모시던 대로 정성을 다해 예불을 했다. 마음은 오히려 나도 모르게 맑게 가리앉아 있었

그 때부터 주위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방은 묘연했다. 사람을 놓아 동네 마을 사람들을 울러오게 하고 이웃 사찰에도 알려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절에서 함께 공부하던 한 청년이 할레벌떡 달려와서 부처님을 찾았다고 했다. 법당 뒤 담장위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다.

(계속)

불교의 계율을 깬 파계승인가 모든것을 다 얻은 득도승인가!



- 구선, 그는 누구인가?
- 그가 18세 때 밝혀낸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 1000년의 비밀을 공개한다.
- 행자의 신분으로 10년간 전국을 만행하며 깨달음을 얻기위해 고승을 찾아다니며 일구어 내는 선문답
- 전생의 인과에 의해 이어지는 사창가 여인과 사랑과 이별
- 혹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속에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한 승려의 처절한 수행기
-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밝혀낸 우주 창조와 비밀과 윤회의 순환고리
- 최초로 공개되는 영혼의 생성과정과 2000년대에 대한 비전들
- 고행을 하는 한 승려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이 이처럼 잘 묘사된 책은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서기 2000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무엇이 시대를 움직여 가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명의 의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이책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마음 닦는 길을 제시해 놓은 책.

구선스님 지음 460쪽 / 값15,000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소설 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3-14 3F 전화 354-6204-5 팩스 354-6292